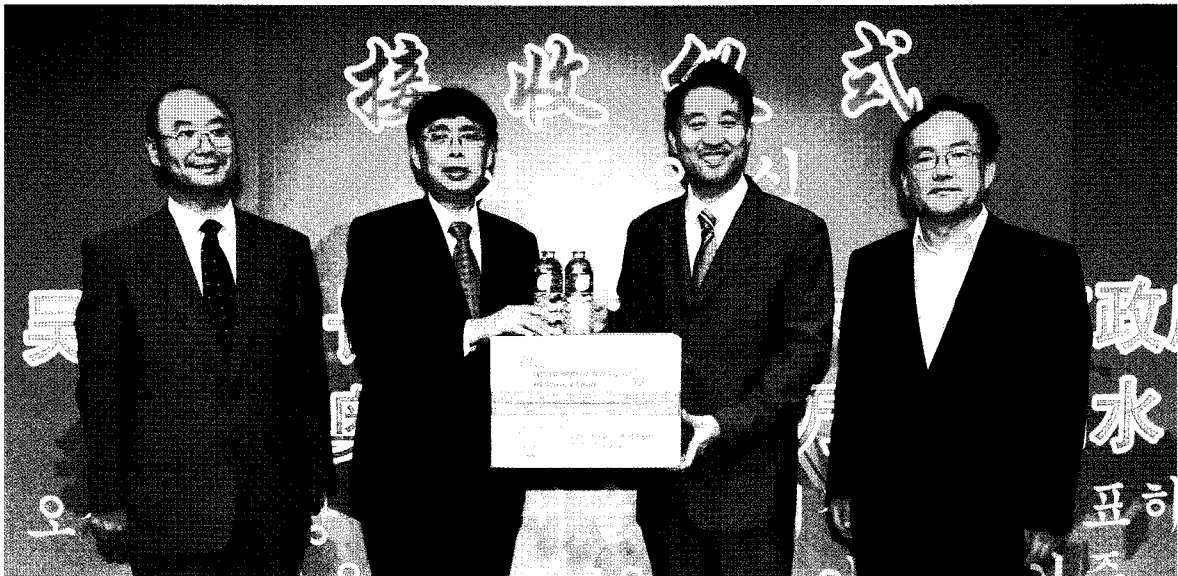


01

아리수, 올림픽 경기장을 누비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지구촌 축제인 2008 베이징 올림픽의 갈증을 풀어준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경기장을 누볐다. 서울시는 아리수 페트병 10만병을 베이징 올림픽 자원봉사자들과 재중 한국인 응원단에 지원했다. 이는 재중국한국인회 등에서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음용수로 아리수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에 대한 아리수 페트병 지원은 지난 6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로 고아가 된 아동들에게 아리수 페트병 10만병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행사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동시에 앞으로 아리수가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9일 천하오쭈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만나 아리수 기증식을 갖고,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현재 아리수 페트병은 단순나 재해지역 긴급 지원과 시 및 산하기관의 회의, 시민고객이 참여하는 공공행사 등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제공되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청와대, 정부기관, 국회, 장차관회의, 국제회의장에도 공급되고 있다. 특히 2007년 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태안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의 물결이 밀려오자 서울시는 아리수 3만병을 긴급 지원해 자원봉사자들의 식수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며, 작년 9월 수해로 인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북한 지역에도 1.8리터 아리수 5만병을 인천항을 통해 제공한 바 있다. ☺

환경부 먹는물 정책 선진화 대토론회

수도사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관련 열띤 토론
수도사업 경영 합리화 vs 수도사업 형평성 제고



환 정부는 수도 10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먹는물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먹는물 정책 선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수도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수도정책의 장기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업계, 지자체 등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먹는물의 건강성 향상, 낙후지역 서비스개선,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관광관리정책의 발전적 추진 등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사업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수도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사회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은 수돗물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의 시설 투자비,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이윤만큼 수돗물 값이 올라 '수돗물 괴담'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위탁경영은 민영화도 민간위탁도 아니며, 수도사업 개편은 국가의 책임 아래 상수도에 대한 투자만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광역화, 전문화를 통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물산업도 육성되고 수돗물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현 수도체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 수도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돗물 100주년 기념 아리수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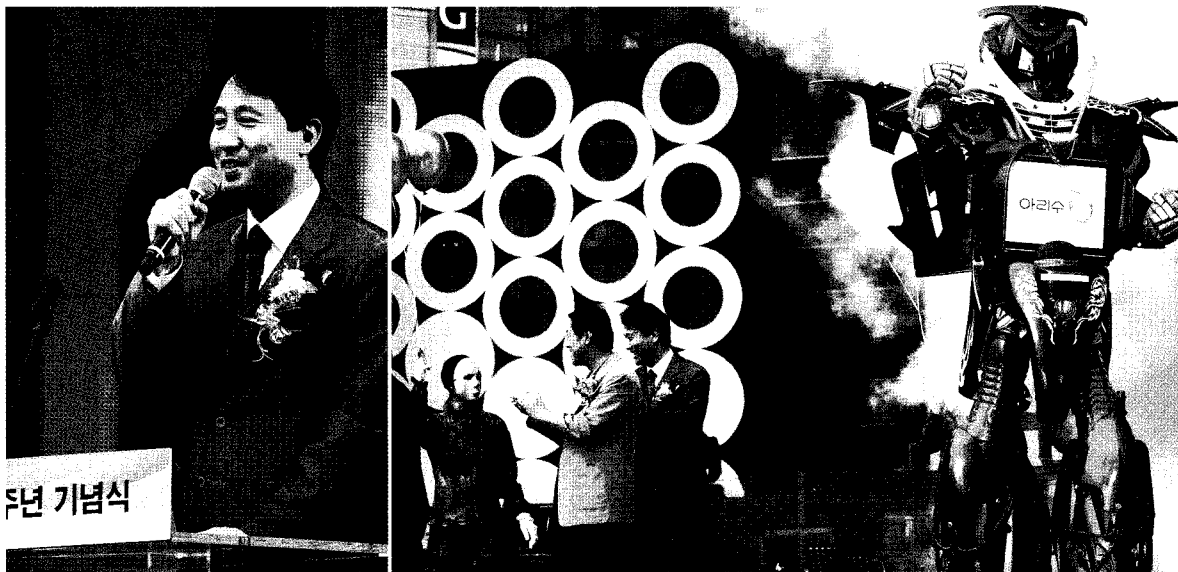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아리수 페스티벌
서울 수돗물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다시 시작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수돗물 100주년 기념 아리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상수도 보급의 100년 역사를 넘어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적인 날이다"라며 축하메시지를 시작했다. 이어 "수돗물에 관한 '생활시정' 목표는 시민고객들이 불안과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2013년까지 모든 아리수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더욱 품질 높은 아리수를 제공할 것"을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수돗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 상수도 발전에 공로가 큰 관련 시민고객들에게 서울시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과 함께 표창장

을 전달하였다. 금번 기념행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었으며 '서울 수돗물 통수 100주년 홍보관'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행사기간 중 '아리수 사랑 가족걷기대회' 및 '아리수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마련하여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체납 수도요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서울시 수돗물 100주년 기념 아리수 페스티벌'은 즐기는 축제를 넘어 수돗물의 의미와 소중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가 없던 시절의 물 공급 방법을 체험해 수돗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물지게 빨리 나르기' 등의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돗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서울시, 국제적인 물정책·기술 심포지엄 개최

세계 각국의 물정책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방안 모색하고
서울시 상수도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을 토론



2008 서울 국제 물 상수도기술

100th Anniversary of Seoul Waterworks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n Water Policy



수도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 국제 물정책 및 상수도기술 심포지엄'이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 국제 물정책 포럼, 수도물 100주년 기념 아리수 대토론회, 상수도 수질관리 및 기술동향'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미국 등 8개국 18명과 국내 12명 등 총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첫날 '서울 국제 물정책 포럼'에서는 '한국의 먹는물 정책 방향'을 주제로 6개국의 전문가의 물관리 및 상수도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물 정책의 세계적인 동향을 제시했다. 둘째 날 '수도물 100주년 기념 아리수 대토론회'에서는 상수도 보급에 따른 서울시민의 삶의

변화와 건강증진, 시민생활에 미친 영향 등 상수도 발전에 대한 회고와 수도물 수질평가를 통해 지난 100년의 역사를 교훈삼아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진행된 '최신 상수도 수질관리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보공유와 최신 수질관리 기법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얻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진익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외국의 상수도 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뿐 아니라 국내 상수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정례화하여 세계와 교류하고 더 나아가 국제 물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시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